

광주 교육현장 안전관리 '부실'

교육청 담당부서 4명이 유치원 300여곳 관리...매뉴얼만 배포 점검 소홀

짬뽕버스 원아 방치 유치원

2개 학급 멋대로 증설 적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계기로 교육 현장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세월호 침몰 참사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설마 괜찮을거야'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여전히 안전을 도외시켰고, 안전 의식을 지도하고 교육환경을 점검해야 할 교육청도 제 역할을 저버렸다는 지적이 거세다.

광주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광주시교육청과 교육 현장의 안일한 안전 인식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통학버스 안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고 교육청은 매뉴얼만 배포했을 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데는 소홀했다. 이런 상황에서 담당자들이 매뉴얼을 숙지,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교육청이 통학버스 및 재난 사고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담당 부서를 지난해 4명에게 전담토록 한 데 따른 비판도 나온다. 사립 유치원만 184곳에 달하고 공립유치원도 127개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생색 내기성 대책'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유치원 교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 교육도 요구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해 해당 유치원에 대한 점검을 벌였지만 당시는 적발 내용이 없었고, 교육청 인력에서는 4명의 직원이 300개가 넘는 공·사립 유치원을 점검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견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지난달 29일 오후 4시42분께 광주 광산구 S유치원 인근에 주차돼 있던 통학버스 안에서 A(4)군이 쓰러진 채 운전기사 임모(51)씨에 의해 발견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원의 경우 지난 1997년 7학급(정원 210명)으로 유치원 인가를 받았지만 현재 9개 학급(정원 181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아교육법과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기준에 따라 학급 수를 변경할 경우 관할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S유치원은 이런 절차 없이 학급 수를 늘렸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교육청은 지난해 해당 유치원에 대한 점검을 벌였지만 당시는 적발 내용이 없었고, 교육청 인력에서는 4명의 직원이 300개가 넘는 공·사립 유치원을 점검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견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지난달 29일 오후 4시42분께 광주 광산구 S유치원 인근에 주차돼 있던 통학버스 안에서 A(4)군이 쓰러진 채 운전기사 임모(51)씨에 의해 발견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유치원 인솔교사·버스기사 사전영장 청구

광주지방경찰청은 35도가 넘는 폭염에 유치원생을 통학버스에 방치해 중태에 빠트린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인솔교사 정모(여·28)씨와 버스기사 임모(5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9시10분부터 오후 4시42분까지 광주시 광산구의 모 유치원 25인승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A(4)군을 방치,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승·하차 인원 점검 및 차량 내부 확인을 하지 않았고, 임씨는 내부 확인을 하지 않고 세차장으로 가 세차를 하고 주차장으로 차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중태 과실로 아이가 중태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온 점 등을 근거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출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로 원장 박모(여·52)씨와 주임교사 이모(여·34)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원장 박씨와 주임교사 이씨는 출석 체크를 하지 않아 A군의 출석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당시 이 유치원은 전체 방학(8월 1~3일)에 앞서 7월 27~29일 종일만 운영하는 임시 방학에 들어갔고 A군을 포함해 60여명이 돌봄교실 참가 신청을 했다. 첫날은 대부분 등원했고 점점 줄어들어 셋째 날에는 30여명만 참가했으나 유치원 측은 출석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승·하차 점검과 출석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모두 인정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세방산업 발암물질 관련 검증위 구성

근로자·주민 피해 조사 나서

세방산업이 발암물질인 TCE(트리클로로에틸렌)를 배출한 것과 관련, 광주시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와 주민 피해 정도 등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세방산업 TCE 배출대책 TF팀' 3차 회의에서 '세방산업 TCE 배출 관련 검증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위원회는 오는 12월까지 운영한 후 필요시 TF에서 논의 후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세방산업 TCE 배출대책 TF팀' 2차 회의에서는 조선대직업환경의학과 이철갑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검증위원회를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검증위원회는 3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우선 1분과는 TCE 사용 공정조사 및 연간 사용량과 배출량과의 상관관계 규명, 공정별 누출정도 실측 등 세방산업 TCE 배출 관련 기술평가와 향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계획 타당성 평가 등을 담당한다. 2분과는 TCE 노출 정도와 근로자 건강영향 평가를 담당하게 되며, 3분과는 측정망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세방산업 TCE 배출로 인한 시민 우려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별통보 받은 에이즈 환자 자살

이별 통보를 받은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AIDS) 확진 동성애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22분께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한 아파트에서 A(46)씨가 안방에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119와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전날 밤 '미안하다. 나 먼저 간다'라는 자살 의식 문자를 받았으니 확인해달라는 A씨의 전 남자친구 B(39)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병원에서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B씨와 교제를 해오다 최근 이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서부소방서 구조대가 지난 1일 밤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대형 구덩이(지름 90cm, 깊이 2m)에 빠져 갇혀 있던 시민을 구조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공사현장 구덩이 방치...한밤 추락 '아찔'

접근금지 펜스 등 설치 안돼 시민 갇혔다 구조

광주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구덩이에 시민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는 10여개의 구덩이가 뚫려있었지만 제대로 된 접근 금지 펜스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2일 광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10시51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뚫린 구덩이에 시민이 갇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는 같은 날 밤 11시께 지름 90cm, 깊이 2m의 구덩이에 서 A(여·48)씨를 구조했다. A씨는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갑자기 빠져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아파트 공사 현장이 인도와 바로 붙어 있고, 주변에 비슷한 크기의 구덩이가 14개나 뚫려 있었지만 접근 금지 펜스와 같은 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구조활동 이후 안전라인을 추가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장소는 한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공사를 추진하는 곳으로 토지 소유자가 울타리를 설치하기 위해 구덩이를 뚫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파트 착공 승인은 나지 않았다.

서구청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를 파악 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전남경찰 교통범죄수사팀 신설

6개월간 뺑소니범 100% 검거

전남지방경찰청은 뺑소니 사고와 난폭·보복운전을 전담하는 '교통범죄수사팀'을 신설한 이후 뺑소니 사범을 100%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경찰은 지방청과 도내 21개 경찰서에 교통범죄수사팀이 신설된 지난 2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뺑소니 교통사고는 174건 발생했으며 피의자를 전원 검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242건의 뺑소니 사고 검거율이 95.5%(231명 검거)였던 것과 비교하면 4.5%p 상승했다.

교통범죄수사팀은 또 지난 6개월간 난폭운전자 25명, 보복운전자 41명 등 총 66명을 검거했고 이 중 보복운전자 1명을 구속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기오염 측정망 전남 모든 시·군에 설치

2021년까지 연차적 확대

전남 16개 시·군에 미세먼지 측정소가 없다는 지적(광주일보 6월 1일자 6면)에 따라 전남도가 오는 2021년까지 산단 지역에 편중된 대기오염측정망을 22개 시·군에 확대 설치된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엔 대기오염측정망이 미설치된 나주·담양·해남·장성 4개 시군에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하는 등 오는 2021년까지 22개 전 시·군에 연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는 여수·광양·순천·목포·영암 등 주로 산단 지역에 대기오염측정망이 편중 설치돼 있다.

전남도는 또 동부권 및 서부권 2개 권역으로 운영 중인 미세먼지 및 오존 정보

권역을 5개 권역으로 세분화 계획이다. 그동안 5개 시·군을 제외한 지역에는 대기오염측정망이 없어 권역별 대기오염도 측정값의 대표성 확보에 제약이 받아왔다.

전남도는 대기오염측정망을 확대함으로써 지역별 대기오염도의 정확성을 높이고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기환 전남도 환경국장은 "전남은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청정 지역"이라며 "대기오염측정망을 확대 설치해 지역별 대기질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도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KIA 선수단 향해 여성이 '알몸쇼'

○~인전의 한 야구장 주차장에서 차량 보닛에 올라가 KIA 타이거즈 선수단을 향해 알몸을 드러낸 40대 여성이 경찰서행.

○~2일 인천남부경찰에 따르면 A(여·43)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52분께 인천시 남구 SK행복드림구장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경기장으로 들어서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선수단을 향해 옷을 벗고 알몸을 내보인 혐의.

○~A씨는 알몸에 반투명 비옷만 걸친 채 인근 자신의 차량에서 기다리다가 KIA 선수단이 나타나자 차량 보닛에 올라가 비옷을 벗고 알몸을 고스란히 드러냈는데, A씨는 경찰에서 "비를 맞아 차량 내에서 몸을 뒤편이 훑어볼 수 있어 KIA 선수들을 보게 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진술.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일반 부동산 매매, 임대
경,공매 NPL 컨설팅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매 추천물건

- ★ [공정] 광주 북구 대충동 첨단산단 삼성전자 인근 대지 3,293㎡ 건물 1,495㎡ NPL추천물건 감정이 17억5천 ▶최저가 12억2천
- ★ [상가]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10층중 10층 스카이라인지 상가 483㎡ 카페,7080, 맥주전문점 추천 감정이 8억7천7백 ▶최저가 6억1천3백
- ★ [상가]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인근 대로변 2층상가 토지 735㎡ 건물 449㎡ 감정이 11억8천7백 ▶최저가 8억3천1백
- ★ [상가] 무안군 남악신도시 메인 상업지구 3층상가 건물 238㎡ 카페, 식당, 병의원 추천 감정이 5억1천 ▶최저가 1억8천2백(36%)
- ★ [공정] 광주 광산구 안창동 공장 대지 5,940㎡ 건물 5,872㎡ 감정이 57억6천7백 ▶최저가 25억8천3백(45%) 기아차공장인근
- ★ [상가] 광주 동구 금남로5가 대로변 산업은행인근 3층상가 대지 566㎡ 건물 827㎡ 광고효과최상 감정이 2억3천2백 ▶최저가 14억9천2백
- ★ [공정] 무안군 삼향읍 남악신도시 인근 신축 공장 유통시설활용가능 대지 5,585㎡ 건물 1,510㎡ 감정이 10억9천7백 ▶최저가 6억1천4백(56%)
- ★ [임몰] 광주 북구 두암동 원로건물 대지181㎡ 건물320㎡ 감정이 2억6천5백 ▶최저가 1억8천5백 투자추천

투자 추천 물건

- ★ [상가] 광주 북구 용두동 대로변 6층상가 대지 525㎡ 은행,사우나등 고수익 유동인구많음 ▶매매 55억원
- ★ [무인텔] 광주 북구 유동 무인텔 대지 1,010㎡ 건물 1,610㎡ 객실 20개 월 5천만원수익 위치좋은 ▶매매 20억원
- ★ [상가] 광주 수완동 경찰지구대 인근 아파트상권 4층상가 주주거처 대지 475㎡ 월8백만원 ▶매매가 17억
- ★ [상가] 광주 서구 풍암동 대형마트 대지 2,961㎡ 1층 마트, 2층 의원, 3층 학원 대형주차장 매매가 상담결정
- ★ [상가] 광주 북구 신운동 첨단2지구 신축 4층빌딩 대지 782㎡ 건물 1,829㎡ 보증금 6억 월2천3백 월18억 ▶매매 48억
- ★ [토지] 주월동 EG더원아파트 인근 대지 661㎡ 현 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 판매장 상가 건축적합 ▶매매13억원
- ★ [상가]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7천 월 3천2백만원 ▶매매 48억 (요양병원허가취득)
- ★ [토지]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역앞 대지 480㎡ 업무지원시설부지 코너위치 건폐 70% 용적 250% ▶급매가 4억4천(급매, 조정무)

수익형 추천

- ★ [모텔] 전남 영암군 월출산 조망 5층 모텔 대지 1,181㎡ 건물860㎡ 대로변 내외부개곳 ▶매매 4억(용2억7천) 투자적합 장기투수 다수 직영추천
- ★ [상가주택] 광주 첨단2지구 대지 258㎡ 건물380㎡ 코너위치 1층상가 다가구 5세대 안집 월 440만원 용 2억2천5백 ▶매매 9억3천
- ★ [펜션] 전남 함평군 대동면 곡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수익성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한라산 조망 펜션, 빌라 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가능 수익형 28억선 교환
- ★ [오피스텔] 광주 동구 자산동 대지 288㎡ 건물 1,088㎡ 원룸18개 투룸6개 쓰리룸6개 (용4억5천포함) 대로변 버스정류장역 ▶매매13억5천
- ★ [상가] 광주 소촌동 대형상가 대지 2,146㎡ 주차장빌딩 포함 대형마트, 사우나등 고수익상가 매매 상담결정
- ★ [상가] 목포시 연산동 롯데스퍼 인근 대로변 버스정류장앞 대단위 아파트단지 배후 신축 3층건물 대지 1,461㎡ 광고효과 최상 ▶매매 35억
- ★ [상가주택] 광주 남구 주월동 남구청 인근 고수익 4층상가, 오피스텔 대지 366㎡ 건물947㎡ 지하1층상가 사무실, 2~4층오피스텔 ▶매매13억5천

상가, 주택, 토지, 임야 매매하실분 전속중개 접수 환영 공인중개사 강천구 062-714-2251